

# 군주전제통치 실현 위해 유교 신봉 · 불교 통제

## <32> 양송(兩宋) 군주들의 불교정책

오대(五代) 말년 후주(後周) 세종(世宗)은 폐불(廢佛)을 단행하고, 전하를 통일하기 위해 적극적인 군사행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방의 계단(契丹)을 정벌하러 출전했다가 세종은 중병에 걸렸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959). 그 다음해 병마절도사였던 조광윤(趙匡胤)이 정변을 일으켜 송(宋)왕조를 세웠다. 송의 태조(太祖)가 된 조광윤은 뛰어난 외교술과 스스로 유가(儒家)의 원칙대로 모범을 보여 남방의 십국을 모두 통합해 중국을 통일시켰다. 그 후 1127년 여진족이 세운 금(金)나라가 북방을 점령하게 되자 고종(高宗)은 수도를 임안(臨安; 지금의 杭州)으로 옮겨 남방만을 지배하게 됐다. 따라서 사가(史家)들은 이를 구분해 북송(北宋)과 남송(南宋)으로 구분하고, 그를 통칭해 양송(兩宋)으로 칭한다. 양송은 비록 북방을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정복당

을 서역에 파견하며 '각각 3만 전(錢)을 하사했다'고 전한다(<송사(宋史)> 권2 <태조본기(太祖本紀)>). 이를 통해 대량의 서역 경전이 북송에 유입됐다. 개보(開寶) 4년(971) 태조는 칙령을 내려 <대장경>을 판각하라고 했다. 이는 태종(太宗)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983)에 완성됐다.<불조통기> 권43 이를 <개보장(開寶藏)> <북송적판대장경(北宋敕版大藏經)> <칙판(敕版)> 등의 명칭으로 칭하는데,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최초의 목판(木板)으로 만든 <대장경>이다. 이외에 태조는 세종의 폐불로 손상된 몇몇 사찰들에 대해 중수(重修)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태조를 이은 태종(太宗)은 태평흥국 5년(980), 중천축(中天竺)의 승려 법천(法天), 천식재(天息災), 시호(施護) 등이 법본(梵本)의 경전들을 가져오자 조정에 역경원(譯經院)을 설립하고, 관에서 관리해 역경



그림 · 김홍인

### 송대 320년 큰 전란 없이 존속기간 가장 긴 왕조

### 태조 폐불령 해제 · 사찰 중수... 진중 '송석론' 찬술

했지만, 1279년에 원(元)나라에 멸망하기까지 320년에 달하는 중국에서 가장 존속기간이 길었던 왕조이다. 더욱이 전체적인 양송의 역사는 역대 중국 왕조의 통치에 비해 큰 전란도 없이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사회를 유지했다. 이는 중국의 종교와 철학, 예술 등의 방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송을 건국한 태조는 역사의 교훈, 특히 당의 멸망과 오대의 왕조교체를 통해 군사력과 행정력을 모두 장악한 지방의 변진(藩鎮; 절도사)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모든 군사·경제·정치적 권한을 군주에게 집중시키는 군주전제통치를 실현시켰다. 이러한 태조의 통치는 불교에 대한 정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송 태조는 즉위 몇 개월이 되지 않아 후주 세종이 현덕(顯德)년간(954-959)에 내린 폐불령(廢佛令)을 해제시켰고 동시에 어린 행자 8000명을 출가시켰다. 사실상 이러한 조치는 바로 불교신앙이 강한 남방의 오월(吳越) 등의 십국을 귀순케 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기도 했다. 건덕(乾德) 3년(965) 창주(滄州)의 도원(道圓) 스님이 18여 년 동안 오천축(五天竺)을 거쳐 우전국(于闐國; 현재 호탄(Khotan) 지역)의 사신과 함께 수도인 변경(汴京; 지금의 開封)에 도착해 태조를 일련해 서역의 자세한 상황을 전했다. 그 다음해 태조는 행군(行勤) 스님 등 157인

하게 했다. 8년(983) 태종은 새롭게 번역된 경전을 대신들에게 전사하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양씨(양무제)가 사신(舍身)해 사노(寺奴)가 되고, 사문의 법도를 실천하라고 조칙을 내리는 것은 참모로 크게 미혹된 것으로, 짐은 이를 취하지 않겠노라"라고 말했다.<태종실록(太宗實錄)> 권26 이러한 입장에서 태종은 한 편으로는 10여 만의 승니(僧尼)의 출가를 허용하고, 엄청난 재물을 들여 사찰을 보수시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승니의 수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조칙을 내렸다.<불조역대통제> 권18 이와 같은 북송 태조와 태종의 불교에 대한 태도는 사실상 북조(北朝)로부터 오대로 이어지는 북방의 정책이다. 이른바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법안이 모두 북방에서 발생했음을 상기한다면 더욱 분명하다. 그러나 양송의 군주들은 '폐불'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것은 태조의 "도교와 불교의 두 가르침은 모두 세상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미혹해 한 쪽에 치우쳐 종종 서로를 핍박해 스스로를 높이며 하고 있다. 만약 승려와 도사가 때에 따라 품행이 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어찌 그 가르침을 폐하겠는가!(<속자치통감장편> 권36"라는 말로부터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아마도 태조는 '삼무일종' 법안의 역사를 통해서 '폐불'이 실제로 통치자에게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세종의 폐불을 전혀 묵도하고, 그로부터 발생했던 불교인들의 다양한 반항들을 묵소 겪으면서 거대한 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극단적인 조치는 오히려 다른 부작용만을 낳는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본인은 철저히 유가를 신봉하면서도 불교에 대해 적당한 회복과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 태조와 태종의 불교에 대한 정책은 전체적인 양송의 불교정책이었다. 역대의 군주들이 혹은 친불교적이고, 혹은 친도교적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유교를 근본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진중(眞宗)은 불교를 숭상한다는 의미인 <송석론(崇釋論)>을 찬술하는데, 그 가운데 기본적인 인식은 바로 불교와 유교의 가르침이 "자취는 다르지만 그 도는 같다(迹異而道同)"는 것이었으며, 그宗旨(宗旨)은 모두 "사람들에게 선(善)을 권하고, 사람이 악함을 금지함"이라고 보았다. 또한 '불살생은 바로 인(仁)이요, 도독질하지 않음[不濫]은 바로 청렴함[廉]이고, 미혹하지 않음[不誑]은 바로 신(信)이며, 망령되지 않음[不妄]은 바로 정(正)이고, 취하지 않음[不醉]은 바로 연속함[繼]이다"라고 논한다(<불조통기> 권44). 이로써 보자면, 불교는 유가와 함께 사회의 교화에 뛰어난 공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진중은 사찰의 불상이나 금보(金寶)의 훼손을 금지하는 조칙을 내리고, 역경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당 무종의 회창(會昌) 시기에 훼손된 용문석굴(龍門石窟)을 복원하지는 상소에 명확하게 거절을 하며 "나라를 운용함에는 법도가 있어야 하는데, 외교(外勳)를 받들고자 한다면 백성의 노고와 재물의 낭비가 지나칠까 두려구나(<자치통감장편> 권65)"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은 바로 양송 군주의 불교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진중(眞宗)은 특히 선학(禪學)에 이해가 깊었다. 부마도위(駙馬都尉) 이준욱(李遵勗)이 편찬한 <천성광명록(天聖廣燈錄)>의 서문(序文)을 쓰면서 곳곳에 불교에 대한 '외호(外護)'를 표현했다. 그러나 당시 승려수가 급증하자 장동(張洞)이 "지금 사부(祠部)의 장부에 기록된 승려수가 30여 만에 이르니, 승려수를 줄여 그 폐단을 막게 하라"는 상소를 올리자 조정은 "전제 승려의 수에서 삼분의 일을 감하라"는 조칙을 내렸다.<송사(宋史)> 권299) 이후부터 비록 깊이 불법을 이해하는 군주라도 불교를 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남송에 이르러서도 군주들은 기본적으로 북송의 불교정책을 따랐다. 특히 남송의 수도 임안은 바로 십국 가운데 가장 불교를 신장했던 오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군주들은 불교에 대한 통제를 통해 민

심을 수습하고자 했다. 그러나 금과 화해가 이루어져 다시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자 남송의 군주 가운데 불교에 귀의하는 황제들이 출현했다. 그 가운데 효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효종은 특히 간화선(看話禪)의 제창으로 유명한 종교(宗杲) 선사에게 내도감(內都監) 황인(黃彦)을 파견해 종교 선사에게 "반야를 선양하라"고 명령했으며, 또한 오백나한(五百羅漢)을 공양해 '묘희암(妙喜庵)'의 세 자와 진찬(眞贊)을 내렸다. 후에 다시 '대혜(大慧)'의 호를 내렸으며, 선사가 입적하자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보각(寶覺)'의 시호와 '보광(寶光)'의 탑호를 사했다. 송대의 황제들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군주전제통치를 실현하려 했고, 그를 이론적으로 지지해주는 유교를 신봉했다. 또한 북조와 오대로 이어지는 정책을 채택해 불교를 철저한 통제에 두었다. 이 상황은 비록 양송시대에 이른바 '선학의 황금시대'라고 칭할 만큼 오가칠종(五家七宗)의 조사선(祖師禪)이 번창했지만, 결국 불교는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이학(理學)'에 그 주도권을 내주고 점차 쇠퇴하게 됐다. 이는 황권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봉건전제체제에서 불가피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측면도 중국 역사불교의 한 면모이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b>불자 정보</b> 728호   TEL 02) 2004-8214(直) 732-1522 FAX 02) 737-0696	<b>포교당 안내</b> ● 위치: 청량리역 2분거리 ● 5층건물중 5층 전체사용 80평중 마당 30평, 법당 30평 방2, 거실1, 욕실2개, 부엌1, 다락1 ● 삼존불, 지장단, 1차원불 5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5800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b>010-2069-0824</b>	<b>포교원 (급)안내</b> ● 위치: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40평 ● 상가: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b>010-2259-6787</b>	<b>포교원 (급)안내</b> ● 위치: 군포, 안양지역 ● 평수: 76평, 방4개 공간감, 샤워실, 화장실별도 (스님만 쓸 수 있는 곳)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1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b>011-685-6740</b>	<b>사찰 안내</b> ● 위치: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2억5천만원 <b>011-452-8374</b>	<b>임법당 안내</b> ● 위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5, 욕실, 주방 ● 야미타삼존불, 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3천만원, 즉시법회가능 <b>010-2204-8375</b>	<b>포교당 안내</b> ● 위치: 부산시 금정구 잠정3동 ● 평수 50평, 방2간, 공양간 별도 삼존불, 인동, 영가단 ● 가액: 전세 3,000만원, 월 10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상담후 절충가능) ● 즉시 법회가능 <b>010-9809-5006</b>	
	<b>포교당 안내</b> ● 위치: 전남 광양시 광영동 명진사 ● 특징: 약 50평, 삼존불 외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b>010-3163-5014</b>	<b>암자(토굴)안내</b> ● 위치: 전남 벌교읍 ● 대지 120평 ● 기와집, 수세식 화장실 ● 시설완비 ● 가액: 2천5백만원 <b>010-3541-2314</b>	<b>포교원 안내</b> ● 위치: 강남구 역삼동 ● 실평수: 16평 ● 방1, 삼존불, 맹화, 기타 ● 보증금 1,000만원 월 75만원 시설비 1500만원 <b>010-8795-2832</b>	<b>포교당 안내</b> ● 위치: 양산시 북부동 ● 평수: 86평(법당 46평) 방3간, 공양간 ● 삼존불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보살) ● 전세 3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및 비품대는 ● 상의 후 결정 <b>010-8011-7444</b>	<b>포교당 안내</b> ● 위치: 대구시 동구 ● 옛 한옥 50평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및 식월세 800만원 시설비 500만원 (건강상 급안내) <b>010-5886-3088</b>	<b>포교당(급)안내</b> ● 위치: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 4층건물(법당 30평) 방2, 주지실, 삼존동불 ● 시설안내, 즉시 법회가능 (유학준비 관계상 급 안내)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 시설비 3천만원 <b>010-8897-6717</b>	<b>포교당 안내</b> ● 위치: 대구 북구 구암동 ● 법당(건물)60평 ● 약사도량, 즉시법회가능 ● 약숙, 뜰방, 발침교실 (불보살님께 인수 후 당분간 스님 관리지도함) <b>053)326-0806</b> <b>010-6592-0808</b>
	<b>포교원 안내</b> ● 위치: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3층건물중 2층 ● 약 45평, 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중무실 겸 방2간 ● 보증금 1천만원 / 월 60만원 모든시설 완비(시설A급) 시설비 2300만원 <b>010-2208-4899</b> <b>053)552-6487</b>	<b>부자가 되는 명당</b> ● 땅: 관리지역 약 1만평 토목공사 완료 ● 건물: 신축 원룸 60평식 2동 20평 토굴 1동 ● 가액: 15억 중 5억 대출가능 ● 용도: 펜션, 기도원, 연수원, 전원주택 불사 가능 투자 가치 100% <b>010-8992-6787</b>	<b>포교당 안내</b> ● 위치: 경기도 부천시 역전에서 도보로 10분 시장 5분거리, 상가 3층 중 3층 ● 약 30평, 방3개, 화장실겸욕실, 욕상사용 즉시법회가능 ● 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명화 등 집기 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b>010-3630-3579</b>	<b>임법당 안내</b> ● 위치: 강원도 주문진읍 중심가 1층 단독주택 약 40평 ● 법당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명화 칠성 산신 용왕탱, 지장보살 후불108불, 큰방2개, 화장실2개, 거실, 주방, 10여개 주차공간, 불사관계로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b>033)661-2915</b> <b>011-402-1669</b>	<b>사찰(급)안내</b> ● 위치: 경남 의령군 공평면 소재 ● 총평수: 1700평중 허가면적 550평 ● 건물: 임법당, 요사채, 산신포함 약 100평 ※현재 공사중인 사찰로써 갑자기 스님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급하게 양도하오니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 현재 총공사비 약 4억 5천만원 소요 ● 가액: 2억(방문 후 가격절충가능) ● 암자 및 조그마한 사찰과 교환가능합니다 <b>055)572-0405</b> <b>011-9850-8208</b>	<b>사찰 안내</b> ● 위치: 밀양군 두안면 운정리 노리실 부근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 9,500만원 <b>055)356-5322</b> <b>051)254-3016</b> <b>016-832-5114</b>	<b>포교당 안내</b> ● 위치: 대구 북구 칠곡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 실평수: 60평, 3층 내법당 30평 기타 30평 ● 침구처도, 왕족품방, 발침교실, 기차로실 주불, 약사불, 지장불, 신중, 칠성, 산신, 관음, 지장소불 108불 조성(최고의 시설) ●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5,000만원 ● 전도차 및 법회 외 월 고정수입 500만원 ● 양명들이 있는 스님이나 불보살 불자분께 한하여 인수한 분에게 치료하는 법을 전수해 줍니다 <b>010-6592-0808</b>